

高麗時代 歴史編纂에 있어서 前代史의 記録과記憶에 관한 小考

李, 鎮漢
高麗大學校韓國史學科 : 教授

<https://doi.org/10.15017/2186146>

出版情報 :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6, pp.15-19, 2016-03-3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高麗時代 歴史編纂에 있어서 前代史의 記錄과 記憶에 관한 小考¹⁾

李 鎮 漢 (高麗大學校 韓國史學科 教授)

들어가며

역사가는 사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뒤,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취사선택을 하여 새로운 역사책을 만든다. 그러므로 역사 편찬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는 사료이지만, 역사가는 기억할 것만 기록으로 남겨 놓기 때문에 많은 사료가 활용되지 못한 채 멸실되어 버린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한국고대사의 기본 사서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는 저자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자신들의 역사관에 입각한 서술이었고, 후대에 기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영역이 고대에 비해 축소되면서 옛 古朝鮮 領域의 記憶과 記錄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고,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면서 해당 국가의 기억과 기록도 원만하게 전해질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기억하고자 하는 과거사를 남기려는 주관적인 의지와 더불어 영토의 축소와 역사적 전승의 단절이라는 요소가 함께 내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만 한국고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려시대 전대사 서술에서 기억과 기록의 문제를 간단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1. 高麗前期 前代史의 記錄과 記憶

고려 태조 왕건은 918년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泰封의 弓裔王을 몰아내고 즉위한 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高句麗가 장수왕대 이후 사용하던 高麗를 나라의 이름으로 정하였다. 이처럼 신왕조의 명칭이 고려가 된 배경에는 王建의 조상이 高句麗系라는 점도 있지만, 새롭게 창건한 고려가 900여년 전통과 권위를 지닌 신라, 옛 백제 지역에서 건국하여 불과 20여년만에 韓半島의 覇者로 성장한 후백제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고구려의 화려한 과거의 부활이라는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²⁾ 신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왕조를 세웠던 弓裔, 甄萱, 王建 등이 한결 같이 새로운 국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 지역에 기반한 왕조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지 200여년이 지났어도, 그 영토내에 신라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채 고구려와 백제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후삼국의 국호 제정에 영향을 주고, 백성들을 결집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은 동시대인들의 과거사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역의식 또는 國家 正體性의 源泉이 되면서 커다란 정치적 힘을 발휘하였다.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고, 936년에는 고려가 후백제를 정벌하여 마침내 후삼국이 통일되었다. 고려왕조는 전대사의 기록을 정리한 官撰史書로서 『舊三國史』와 『三國史記』를 간행하였고, 대몽항쟁을 겪은 13세기 후반에는 개인저술로서 『三國遺事』·『東明王篇』·『帝王韻紀』 등이 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지금은 전하지 않는 많은 기록을 참고하여 저술하였다. 예를 들어 『三國史記』는 『花郎世紀』, 『鷄林雜傳』, 『漢山記』, 『樂本』, 『金庾信行錄』, 『帝王年代曆』, 『新羅古記』, 『三韓古記』, 『海東古記』, 『古記』, 『碑記』 등의 중국자료와 더불어, 『史記』·『唐書』 등 中國 正史類, 『資治通鑑』, 『冊府元龜』, 『通典』 등이 이용되었다.³⁾ 『三國遺事』·『東明王篇』·『帝王韻紀』의 저자들도 거의 유사한 자료

1) 이 글은 <재해와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2012년 5월 11일-12일 양일간 개최된 제4회 아시아문화교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2) 고려의 고구려계승의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에 자세히 설명되었다. 박용운, 『고려의 고구려 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2006.

3) 高柄翊, 「三國史記에 있어서의 歷史敘述」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韓國의 歷史認識(上)』, 創作과批評社, 1976, 53쪽.

를 참고하였다고 여겨진다. 『三國史記』가 인용한 중국측 자료는 대부분 오늘날 확인 가능한 것이지만, 고려의 고유한 자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비교할 수 없다.⁴⁾ 또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의해 전대사의 집대성이 이루어지면서 1차사료인 古記類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게 되자 점차 滅失되어 갔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고기류를 대신하여 사실상 1차사료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고대사는 대체로 고려시대에 편찬된 사서들에 의존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다. 考古學的 成果와 더불어 金石文·木簡·古文書 등과 같은 자료가 많이 발견되어서 한국 고대사를 고쳐써야할 분야도 생겨났지만 백제의 「書記」, 고구려의 「新集」, 신라의 「國史」 등 당대의 역사가 나오지 않는 한 두 사서가 가지고 있는 고대사연구 기본 텍스트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는 전대사를 정리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료를 모으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등이 망한 지 수백년이 지나 기록이 없어져서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신라는 고려에 귀부하여 원만하게 고려에 융화되어 나갔던 데 반해, 고구려·백제 등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과 기억이 전해지기 어려웠다.

2. 『三國史記』의 전대사 기록과 기억

고려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사를 기억하기 위해 역사책을 만들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이전에 남겨놓은 기록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김부식이 『三國史記』를 편찬할 당시에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三國史’는 당대의 사가들이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최선을 다해 편찬한 사서이지만,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몇가지 한계가 있었다. 김부식은 사대부들이 중국의 것은 잘 알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역사를 모르는 것에 대해 탄식하면서 삼국에 관한 중국인의 기록이 상세하지 못하고, 고려에 전래되고 있는 고기들은 문장의 뜻이 통하지 않고 事跡이 빠져있다고 지적하였다.⁵⁾

이와 같이 김부식이 主體的인 역사의 편찬을 위해 중국 사서보다는 전래의 古記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신라를 제외한 백제와 고구려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다음의 사료는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A. … 新城·建安·駐蹕의 세 곳에서 벌어진 큰 전쟁에서 우리 군사와 당나라의 군사 및 말이 죽은 것이 매우 많았다. 황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여 탄식하며 “魏徵이 만약 있었다면 나에게 이번 걸음을 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 논하여 말한다. “당나라의 태종은 聖明하여 세상에서 극히 드문 임금이다. 난을 다스린 것은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에 비길 수 있고, 다스림을 이룬 것은 成王과 康王에 가깝다. 군사를 쓸 때에 이르러서는 기이한 피를 내는 것이 무궁하여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동방 정벌에서는 안시성에서 패전했으니 안시성주는 호걸이며, 비상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史記에 그 姓과 이름을 전하지 않으니, 揚子가 이른바 “제나라와 노나라의 대신이 『史記』에 그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다름없다. 매우 아까운 일이다.⁶⁾

B. 논하여 말한다. “비록 乙支文德과 같은 슬기로운 계략이 있고, 張保臯와 같은 의용이 있는 사람도 중국의 역사책이 아니면 자취가 아주 없어져서 알려지지 않을 뻔했는데, 金庾信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여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다. 사대부들이 그를 알고 있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풀 베는 아이와 소 먹이는 아이들까지도 또한 그를 알고 있으니, 그 사람된 품이 반드시 보통사람보다 다른 점이 있었을 것이다.”

4)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5, 17쪽.

5) 『三國史記』 進三國史表.

6) 『三國史記』 권22,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 동10월.

A는 645년 고구려의 對唐戰爭 승리에 대한 金富軾의 사론이다. 고구려에 패한 당태종을 평가 하면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고구려 장수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B는 김유신 열전의 사론으로 을지문덕·장보고에 관한 기록이 중국의 사서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전하지만, 김유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전해졌음을 칭송하고 있다. A와 B는 삼국시대에 기록된 「고기」가 남아있게 되는 계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언급이다.

이들 자료와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것은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되었다는 점이다. 이후 고구려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곳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669년 2월에 寶藏王의 아들 安勝이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의탁해 갔고, 4월에는 唐 高宗이 3만 8천 3백 호를 江淮의 남쪽과 山南·京西 여러 주의 빈 땅으로 옮겼다.⁷⁾ 677년 2월에는 보장왕을 遼東州都督으로 삼고 조선왕으로 봉하였으며, 여러 주에 흩어져 있던 유민들을 요동으로 귀환시켰으며, 안동도호부를 신성으로 옮겨 통치하게 하였다. 하지만 보장왕이 요동에 이른 후, 배반을 꾀하여 몰래 말갈과 통했으므로 다시 양주로 옮기고, 고구려 사람들은 河南·隴右 등 중국 내륙의 여러 주에 분산 이주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은 安東城 옆 옛 성에 남겨두었으나 그들은 점차 신라에 들어가고 남은 무리들은 흩어져서 말갈과 돌궐에게로 들어갔다.⁸⁾

이와 같이 고구려 사람들이 멸망 이후 당나라와 발해의 영역에 살았기 때문에 고구려 또는 자기 지역과 관련된 기억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 안시성, 요동성, 건안성, 평양성 등 고구려와 수·당 전적지는 고구려 멸망이후 당의 영역이 되면서 고구려의 빛나는 승전의 역사를 담은 설화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흔적들도 철저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장보고 역시 중국에서 귀환하여 10여년만에 동북아시아 해상 패권을 잡고, 신라 국왕의 교체에까지 참여한 위대한 인물이지만 염장에 의해 살해되고, 청해진은 훼손되었으며 주민들은 사민되면서 장보고의 행적은 기억의 주체들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강요받았으니, 기록이 남았을 리 없다.

반면에 김유신은 삼국통일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영웅이었고, 승자인 신라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의 성장과정이 미화되고, 그가 다녔던 곳에서 기억할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온전하게 기록으로 남아 고려 때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꿀베는 아이와 소 먹이는 아이들까지도 그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을지문덕과 장보고도 김유신에 비해 업적은 다소 작을지 몰라도 충분히 그 행적이 기록에 남을 수 있었으나,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멸망으로 인해, 장보고는 반역자로서 죽음에 이르렀으므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국내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다.

3. 『三國遺事』의 전대사 기록과 기억

기억을 오래가게 하는 유용한 수단은 아무래도 문자로 된 기록일 것이고, 대표적인 것은 책이다. 그 밖에도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곳에 기념비가 있었다든지, 인물의 사후에 그의 행적을 담은 비문을 세워 두었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건과 인물을 알게 될 것이다. 기록이 없다고 해도 유물과 유적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폐사에 남아있는 석불이나 석탑, 어떤 사연이 있는 바위, 큰 전투가 있었던 산·강·벌판 등은 그 공간 또는 장소가 동기가 되어 구전으로 기억을 전하였다. 하지만 기억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엔가 문자로 기록되어야 기억이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 一然은 神異史觀을 받아들여 불교전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화를 실어서,⁹⁾ 수많은 고대의 사실들을 사라질 위기에서 구해냈다. 다만, 『三國史記』가 그랬던 것처럼 고려에 원만하게 흡수된 신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기록과 역사의 흔적이 많이 없어서 복원해내지 못했다. 그것은 일연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와 더불어 『三國遺事』가 한국 고대의 기억과 기록을 전하는데 세운 가장 큰 업적은 평양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한 各編으로 전래되고 있던 檀君神話를 민족탄생 및 개국의 신화로 보고 기자조선에 앞서는 우리 역사의 첫머리에 둔 것이었

7) 『三國史記』 권23, 고구려본기 보장왕 27년 말미 총장 2년.

8) 『三國史記』 권23, 고구려본기 보장왕 27년 말미 儀鳳 2년.

9) 金泰永, 「三國遺事に 보이는 一然의 歷史認識에 대하여」 『慶熙史學』 5, 1974; 『韓國의 歷史認識(上)』, 創作과批評社, 1976, 138~145쪽.

다.¹⁰⁾ 이에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등의 고조선에 이어 扶餘·高句麗·百濟·新羅 등이 계승하는 한국상고사의 체계가 만들어졌다.¹¹⁾

승려인 일연이 『三國遺事』에서 불교에 관한 자료를 많이 수록한 것은 승려로서 당연하지만, 檀君神話를 채록해서 넣은 것은 삼국 이전의 기억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三國遺事』와 『帝王韻紀』 이전에도 단군에 관한 자료가 있었음의 확인된다. 高句麗 本紀에 ‘평양이란 본시 仙人王儉이 살던 곳이다’라든가,¹²⁾ 1006년에 이미 구월산에 三聖祠가 건립된 것, 고려 인종 때 묘청이 林原宮에 세운 八聖堂의 네 번째 신위 駒麗平壤仙人이 곧 檀君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¹³⁾

그러나 서경-평양-은 단군보다는 箕子나 동명성왕과 관련된 곳으로 인식되었다. 鄭文(?~1106)은 국왕을 호종하여 서경에 갔다가 箕子祠를 세울 것을 청하였고,¹⁴⁾ 尹鱗瞻(1110~1176)은 ‘평양이란 神京을 돌아보면 실로 朱蒙의 옛 도읍’이라고 하였으며,¹⁵⁾ 崔滋(1188~1260)는 ‘西都가 처음 이룩될 때 東明이란 임금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을 돌보시와 거주를 정하셨네’라고 읊었다.¹⁶⁾

당대인들의 시를 보면 평양은 기자조선이나 고구려의 도읍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13세기 사람들이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기록하게 된 것은 대몽항쟁을 거치면서 민족의식이 고양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왔다는 기자보다 더 오랜 진정한 건국 시조를 찾았고, 평양·구월산·태백산·강화 마니산에¹⁷⁾ 전해지던 단군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 『三國遺事』의 일연과 『제왕운기』의 이승휴가 단군에 관한 기억을 찾아 기록한 것은 그것을 원하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기억을 찾으려는 노력-역사가의 현재성 또는 시대적 요구-은 기억을 오래가게 하고 기록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치며 - 高麗時代 記錄과 記憶의 주체 및 대상 -

고려시대에 전대사의 편찬은 당시에 남아있던 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고대에 편찬된 사서·문헌 등을 포함한 古記類와 중국의 사서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타인의 견문으로 기록된 중국 사서의 내용은 『三國史記』나 『三國遺事』가 발간된 이후에도 현전하여 취사선택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고기류는 조상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주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중국사서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기류가 고려시대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기억의 주체들이 전쟁과 이주 등으로 기억의 대상-유적 및 유물-에서 멀어지거나 기억해야 할 것이 사라졌으므로 기억의 전송이 매우 어려워진 경우가 많았다. 안시성의 성주는 당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의 전쟁 영웅인데, 고구려가 당에 의해 멸망되면서 민족의식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관련된 기록이 고의로 지워지거나 기억하지 않도록 강요당하였을 것이다. 기억할 것과 기억할 사람이 없다면 기록이 오래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읽을 때는 이러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10)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른 곰[熊]의 실체」 『韓國史研究』 118, 2002; 『三國遺事 새로 읽기(1)-기이편(紀異編)-』, 일지사, 2004, 14쪽.

11) 李基白, 「三國遺事の史學史的意義」 『歷史學報』 36, 1973; 『韓國의 歷史認識(上)』, 創作과批評社, 1976, 121~122쪽

12) 『三國史記』 권17, 고구려 동천왕 21년 2월.

13)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나무신앙 및 역사인식」 『한국사학사학보』 8, 2003; 『三國遺事 새로 읽기(1)-기이편(紀異編)-』, 일지사, 2004, 78~79쪽.

14) 『高麗史節要』 권6, 숙종 10년 12월.

15) 『東文選』 권104, 「西都君臣大宴致語」.

16) 『東文選』 권2, 「三都賦」.

17)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른 곰[熊]의 실체」 『韓國史研究』 118, 2002; 『三國遺事 새로 읽기(1)-기이편(紀異編)-』, 일지사, 2004, 14~24쪽.

A Study on Records and Recollections of Previous Dynasty's History during the Goryeo Dynasty

Jin-han LEE

(Professor of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In the era of Goryeo Dynasty, the publication of the preceding dynasty's history had to rely on existing records that included ancient documents (e.g. history books and literature) and history books from China. Among them, contents of Chinese books—which were recorded from foreigners' views—were used in a notably selective way even after *Samguksaki*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and *Samgukyusa*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were published. Meanwhile, ancient documents are more subjective in nature as they contained what our ancestors meant to recollect and record. As such, they are far more valuable than the Chinese books in understanding our ancestors' thoughts and sentiments.

However, while these ancient documents were passed down to the Goryeo Dynasty, the agents of memory were often segregated from the objects of memory—historical sites and relics—or the objects were obliterated, which made it very hard to pass down memories in many cases. For instance, the lord of Ansi City was a war hero of Goguryeo, who led the war with Tang Dynasty to a victory. However, as Goguryeo was destroyed by Tang Dynasty, the related records would have been intentionally destroyed and people were forced not to recollect them, so that the lord would not emerge as a symbolic figure of Korean people's national identity. Evidently, when an agent or an object of memory disappears, the record cannot be maintained for long. This needs to be 'remembered' in reading *Samguksaki* or *Samgukyusa*.